

## 불통·불신의 대한민국

### 차대통령 당선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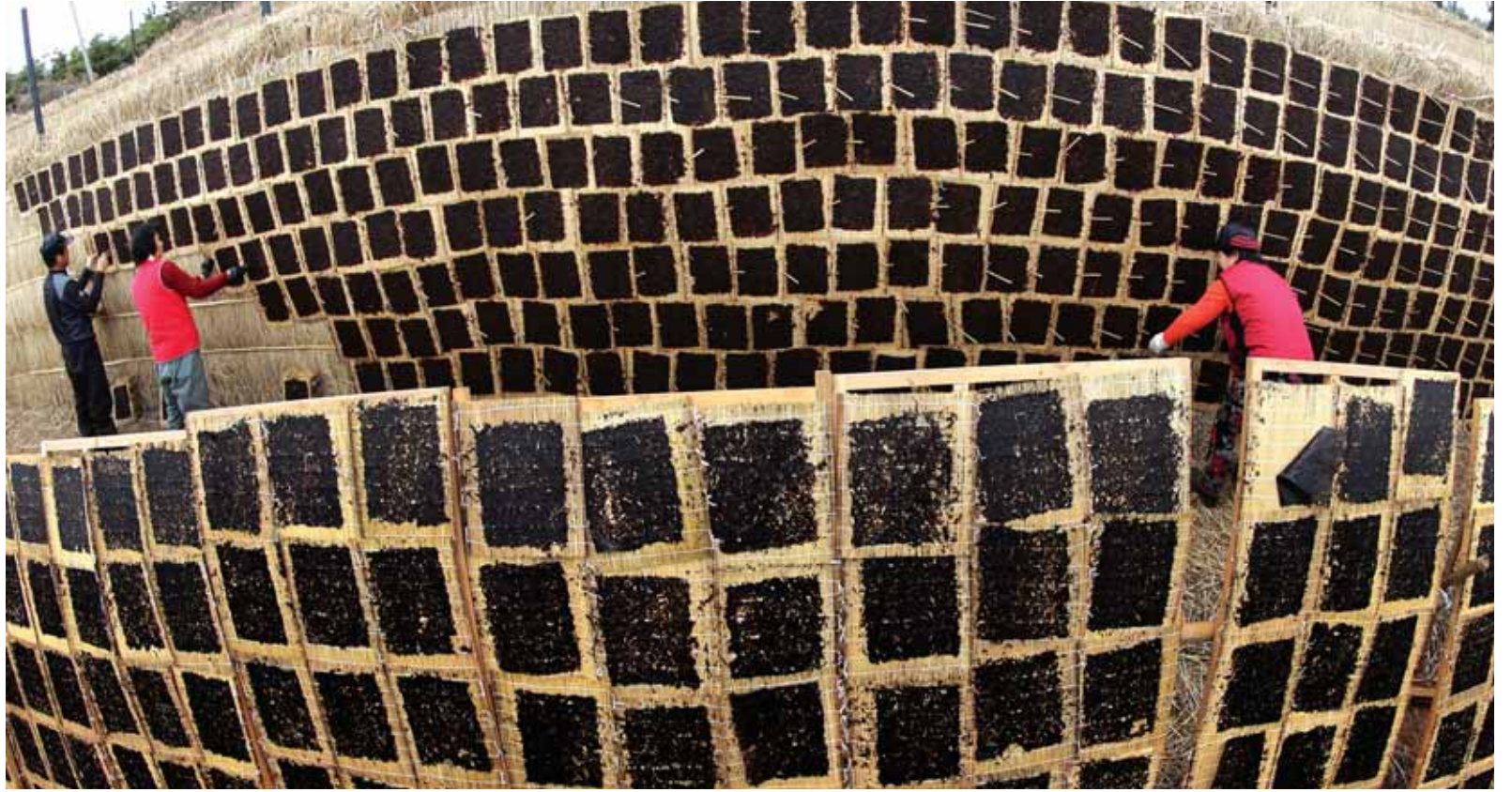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았지만 지난 1년간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소통 부재'와 '국민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지역차별은 심화하고 공약사업이 줄줄이 후퇴하면서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정부가 앞장서 이념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국민대통합은 물 건너 간지 오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에서조차 '잃어버린 지난 일 년'(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 국민 분열...대통합·경제민주화 실종 인사·예산 호남출대 심화...외치 호평

◇불통과 분열 = 박 대통령이 대화·타협, 소통·실득과 같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야 대립은 1년 동안 계속됐다. 박 대통령 대선 득표율은 51.6%로 대통합을 위해선 반대편 지지자의 마음을 얻어야 했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 대부분이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지역·계층·세대·이념' 간 갈등을 뛰어넘어 100%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국민대통합 공약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던 정치적 중도층의 표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민대통합 얘기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자신의 비판자들을 시종 적대시하고 심지어 종북몰이로

이념적 골레를 씌우는 공안적 통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 출대 = 현 정부의 예산과 인사를 보면, 지난 1년간 호남 소외는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반영률은 광주가 38.48%, 전남이 5.84%에 불과했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사전기획 용역비 등 1793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반영된 것은 690억원에 그쳤다. 또 다른 핵심 공약인 광주 도심 하천 생태 복원사업도 1차로 30억원을 요구했으나 무시됐다. 전남은 더욱 심각해 7개 공약 11개 사업에 4293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국비는 고작 252억원에 불과했다. /박진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체 사업비의 0.2%에 해당되는 규모로, 전국 평균치보다도 55.7%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대구와 경북지역 반영률은 각각 88.36%와 63.45%를 기록했다. 인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정원장·감사원장) 중 호남 인사는 전혀 없다. 영남 출신은 2명이었다. 4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의 검사장급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52명 중에서도 영남 출신은 62명(40.8%)인 반면 호남 출신은 27명(17.8%)에 불과했다. 정부와 청와대 장·차관급 90명 중 영남 출신은 32명이었지만 호남 출신은 12명이었다. 전국 300여 공공기관장의 출신 지도 영남이 96명인 반면 호남은 3분의 1 수준인 32명뿐이었다. ◇후퇴하는 공약 =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등 복지 이슈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이슈까지도 주도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대선 뒤 1년 동안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인슈위 시절부터 손질 당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공약은 지난 9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됐다. <2면에 계속> /박진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옛 방식 그대로... 강진 김 말리기 18일 오전 강진군 마량면 서중마을에서 강남월(60)씨 등 노인회원들이 무기산 김을 옛 방식 그대로 햇볕에 말리고 있다. 이 김은 직거래로 1속(100장)에 3만원씩 거래되며, 하루 60속씩 생산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 울산 제치고 특·광역시중 1위

광주지역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울산에 제치고 7대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광주지역 무역수지 흑자는 99억 3504만 달러를 기록했다. 12월 실적을 포함할 경우 11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무역 흑자 93억9285만 달러에 비해 무려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2월 중 광주지역 무역흑자도 1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월과 11월 무역 흑자가 각각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광주지역 월별 무역 흑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10월이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억달러를 넘어서는 기록 달성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수출증가율 1위 달성에 이어 무역수지 흑자 특·광역시 1위는 광주가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로 발돋움했다는 증거"라면서 "이에 자만하지 않고 중소기업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주도형 생산도시로 광주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지역 건축사 35% 철퇴

'방 쪼개기' 설계 101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원룸으로 설계 후 투룸으로 방을 나누는 일명 '방 쪼개기'에 전남지역 건축사 3명 중 1명가량이 업무정지 등 무더기 처벌을 맞았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 61명에 대해 최소 45일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업무정지 조치했고, 26명은 시정 명령하는 등 87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전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처벌을 받은 건축사는 모두 101명으로, 도내 전체 건축사 290명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적발 건수별로 살펴보면 용도변경으로 가구 수를 늘린 경우가 127건, 무허가 증축에 따른 일조권 및 견폐·용적률 위반 133건, 부설주차장 및 경시설 무단훼손 106건 등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축사와 건축사 등이 짜고, 원룸으로 설계한 뒤 투룸 등으로 나누는 '방쪼개기'가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쪼개기'는 가구당 0.7대를 확보해야 하는 다가구주택 주차면적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보인다. 건축사들의 유례없는 무더기 행정 조치에 따라 일부 건축사들은 억울함을 호소, 3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은 주차장 부족과 화재 위험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철도파업 열흘째... 화물연대 대체수송 거부 물류 비상

철도노조 파업 열흘째인 1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철도화물의 차량 수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18일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어 철도화물 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이 계속되자 정부가

화물차량을 이용해 철도 수송분을 대체하려 한다며 화물연대는 물론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연대 투쟁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비조합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한 뒤 대체 인력·수송 대책을 마련,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로 했다. 도는 군인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한편, 시내버스·봉어촌 마을버스 운행대수를 늘리고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통근버스 이용하기와 승용차 합계 타기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한 주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 도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택시 부재 해체 및 심야 시간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종형기자 galee@

SWISS WATCHES TO DREAM OF FOR 160 YEARS

**TISSOT LUXURY AUTOMATIC GENT**  
**TISSOT LUXURY AUTOMATIC LADY DIAMONDS**  
80 HOURS OF POWER RESERVE

SWISS WATCHES SINCE 1853  
INNOVATORS BY TRADITION

**160**  
ANNIVERSARY  
1853 - 2013

Get in touch at [www.tissot.ch](http://www.tissot.ch)  
스위스시계코리아 티쏘사업부 02-3149-9536

티쏘 매장 광주 전문점 Renewal Opening 062-234-7850  
롯데 광주점 062-221-1150